

# 외투/고골

## 발췌

그가 근무하던 관청은 ..... 아니, 어느 관청인지 밝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느 관청이건, 어느 연대이건, 어느 사무실이건, 하여튼 관리만큼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없다. 이제는 개인들까지 자기가 당한 일을 마치 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처럼 생각한다. 어느 도시인지 기억할 순 없지만 아주 최근에 어느 지역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함부로 남용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소 낭만적인 내용이 적힌 어마어마한 분량의 증빙 서류를 첨부했는데, 그 서류에는 10쪽에 한 번씩 경찰서장이 등장하고, 심지어 완전히 술에 취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러니 불미스러운 일에서 벗어나려면, 문제가 되는 곳을 그냥 ‘어느 관청’이라 부르는 것이 낫다. 그 ‘어느 관청’에 ‘어떤 관리’가 근무하고 있었다.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없고 키가 작은 그 관리는 약간 얇은 자국이 있는 불그스름한 얼굴에 눈에 띄게 시력이 안 좋았으며, 이마가 조금 벗겨지고, 양 볼에 주름이 진 데다 치질 환자 같은 얼굴빛을 하고 있었다. 어찌겠는가! 뼈째르부르그 기후 탓인 것을, 관등에 관한 한(우리나라에서는 우선 관등부터 밝혀야 한다) 그는 만년 9급 관리였다. 아시다시피 밝혀도 깍소리 한 번 못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훌륭한 습성이 있는 온갖 종류의 작가들이 마음껏 놀려대고 마구 비꼬는 바로 그 9급이다. 그 관리의 성은 바쉬마취킨이었다. 이름만 보아도 바쉬마끄에서 유래한 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떻게 바쉬마끄와 연관되었는지 알 수 없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심지어 외가 쪽 식구까지도 바쉬마취킨 집안 사람들은 모두 보통 구두를 신고 다녔고, 밀창도 1년에 세 번 정도만 갈았다. 그의 이름은 아까끼 아까끼예비치 였다. 아마 독자들에게 이름이 약간 이상하고 진기하게 여겨지겠지만 일부터 그런 이름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사정이 생겼고 결국엔 그렇게 된 것이다.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3월 23일 저녁 무렵에 태어났다. 고인이 된 그의 어머니는 관리의 아내로서 마음씨가 아주 착한 여자였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아기에게 세례를 주어야 했다. 엄마는 문을 향한 채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오른쪽에는 의회에서 의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뛰어난 대부 이반 이바노비치 예로쉬킨과, 그 경찰관의 아내이자 선행을 잘 베푸는 대모 아리나 세묘노브나 벨로브류쉬코바가 서 있었다. 산모에게 세 가지 이름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했다. 목끼나 솟시로 부르든지 아니면 순교자의 이름을 따서 호즈다자프라고 부르라는 것이었다. 산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싫어요.”라고 말했다. “무슨 이름이 다들 그 모양이람.” 산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달력을 한 장 넘겼다. 이번엔 다시 프리필리, 둘라, 바라하씨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이 나왔다. “아이구, 맙소사.” 산모가 내뱉은 말이었다. “무슨 이름들이 다 그래. 정말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네. 바라다프나 바루흐라면 또 모르지만 프리필리와 바라하씨라니.” 달력을 또 한 장 넘겼다. —빠프시카히와 바흐찌시. “이젠 더 볼 것도 없어요.” 산모가 말했다. “그 애 운명이 그런가 보군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이 더 낫겠어요. 아버지가 아까끼였으니 아들도 똑같이 아까끼라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세례를 받을 때 아기는 울어버렸고, 마치 9급 관리가 될 것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모든 일이 바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또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독자가 직접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그가 언제 어떤 시기에 관청에 들어왔는지, 또 그를 관직에 앉힌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기억할 수 없었다. 부장과 국장이 수없이 갈리는 동안, 그는 언제나 같은 자리와 같은 직위에서 서기로서 같은 업무를 되풀이하였다. 나중에는 그가 제복을 입고 이마가 벗겨진 모습을 한 채 9급 관리가 되기 위해 이미 완전한 준비를 하고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다들 믿게 되었다. 관청에서는 모두 그를 아무렇게나 대했다. 경비는 그가 지나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날아온 파리 한 마리가 응접실을 지나가는 듯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상관들은 그를 냉정하고 난폭하게 대했다. 계장인지 무슨 대리라는 작자는 ‘정서해 주시오.’라든가 ‘이거 재미있고 좋은 일감이지요.’라고 예의를 지켜 해야 하는, 업무에서 사용되는 기분 좋은 말 한마디 없이 코앞에 서류 봉치를 불쑥 들이밀었다. 그러면 그는 누가 일을 맡기는지, 그 사람이 그럴 권리가 있는지 어떤지에 관계없이 종이만 바라보는 일을 맡았다. 그는 종이를 받는 대로 즉시 글씨를 써 내려 갔다. 젊은 관리들은 사무적인 기질을 발휘하여 그를 조롱했고, 그의 면전에서 그에 대한 꾸며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그의 집주인인 일흔 살 먹은 노파까지 등장시켜, 그가 노파에게 맞고 산다고 말하거나 언제 노파하고 결혼하느냐고 묻기도 하고, 눈이 내린다며 종이 부스러기를 그의 머리 위에 뿌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눈앞의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하는 일에도 지장을 받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글을 쓰는 데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다. 농담이 도를 넘어 너무 지나치게 그의 팔을 건드리며 일을 방해하면, 그제서야 “날 좀 내버려둬요, 왜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거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한 단어들과 목소리에는 어떤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있노라면 어느새 연민의 정이 솟아나,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어 남들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를 조롱하던 어떤 젊은이는 갑자기 뭔가에 찔리기라도 한 듯 꼼짝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 젊은이는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고 그때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느껴졌다. 한때는 유쾌하고 사교적인 사람들로만 여기고 알고 지내던 동료들과도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멀어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가장 즐거운 순간에 젊은이는 이마가 벗겨진 작은 관리가 애처롭게 스며드는 말로 ‘날 좀 내버려둬요, 왜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거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절절이 스며드는 애처로운 말 속에서는 ‘나도 당신들의 형제요.’라는 또 다른 소리가 묻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가련한 젊은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 후 평생 동안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를, 누구나 알 만한 세련되고 품위 있고 명예로운 사람들로조차 그 고상하고 점잖고 자랑스런 인품 뒤에 얼마나 잔인하고 무례한 면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알고서 얼마나 몸서리를 쳤는지…….

그처럼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단순히 열성적으로 일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니, 그는 애정을 갖고 근무했다. 이 정서하는 일에서 그는 다양하고 즐거운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즐거움은 그의 얼굴에도 나타났다.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글자도 있었다. 일을 하다가 그 글자를 대하면 너무나 기뻐서 미소를 짓고 윙크를 하면서 입으로 글자들을 불러보곤 했다. 그 때문에 그가 깃털 펜으로 써내려 가는 글자 하나하나를 그의 얼굴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본다면, 자신도 놀랄 일이겠지만, 5급 직책을 하사할 만도 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동료들의 독설을 빌린다면, 허름한 제복 단추와 치질뿐이었다. 그렇다고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느 양심적인 국장이 오랜 기간 근무를 치하하고자 평범한 정서 업무보다 좀 더 중요한 직책을 그에게 맡기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그는 준비된 양식에 따라 다른 관청으로 가는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표제를 바꾸고, 동사를 일인칭에서 삼인칭으로 바꾸는 일일 뿐이었다. 이 새 업무는 그에게 너무 부담이 되어 그야말로 땀을 뻘뻘 흘리던 그는 마침내 이마를 흠치며 말했다. “못하겠어요, 차라리 정사하는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 이후로 그는 항상 정서만 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정서하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옷차림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의 제복은 녹색이 아니라 불그스레한 밀가루 색이었다. 제복의 깃이 좁고 낮아서 그 깃 사이로 비어져 나온 목은 사실 길지 않은데도 유별나게 길어 보였다. 그 모습이 마치 러시아에 있는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안고 다녀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석고 고양이 같았다. 제복에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묻히고 다녔다. 지푸라기나 어떤 실밥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게다가 무슨 재주인지 쓰레기를 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창문 아래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의 모자에는 항상 수박이나 꿀참의 껍질과 같은 잡동사니들이 얹혀 있었다. 그의 젊은 동료 관리가 그 특유의 기민한 눈썰미로 길 건너에서 걷고 있는 사람의 터진 바지 솔기까지 가려내고 얼굴에 능청스런 웃음을 흘리는 바로 그 거리에서 그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역시 어딘가에 눈길을 돌렸을 때도 가지런한 자신의 필체로 써진 글씨들이 그 위에서 어른거리는 듯 하다고 느끼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다가,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말 대가리가 그의 어깨너머로 붙어넣은 콧김이 불에 와 땀났을 때에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 정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 한복판에 있음을 깨닫곤 했다. 집에 돌아오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식탁에 앉아 수프와 양파를 곁들인 쇠고기를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채, 음식에 파리가 붙었는지 무슨 이상한 것이 잘못 빠져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먹어치웠다. 뱃속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 싶으면, 식탁에서 일어나 잉크병을 꺼내어 집에 가지고 온 서류를 정서하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없을 때면 취미 삼아 보관해 둘 요량으로 필사본을 만들어두었다. 그런 서류들은 문체가 특별히 아름답다기보다는 새로운 인물이나 아주 중요한 인물에게 가는 것들이었다.

베제르부르크의 잿빛 하늘이 완전히 어둠에 잠기고, 모든 관리들이 각자의 봉급 수증과 취향에 맞추어

배불리 식사를 마친 뒤, 펜 놀리는 소리와 분주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불가피한 일들, 일에 미친 사람들이 자진해서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떠맡았던 업무들을 끝내고 모두들 휴식에 들어갈 무렵, 나머지 저녁시간을 즐기고자 마음먹은 관리들은 극장으로, 화사한 옷차림의 여인들이 있는 거리고, 또 크지 않은 관리사회의 새 우상으로 떠오른 어느 용모가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너도 나도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연회장으로 달려간다. 이도 저도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4층이나 3층에서 작은 방 두 칸에 현관이나 부엌이 딸린 집을, 몇 끼의 식사와 노는 것을 포기하고 사 모은 램프나 이것저것 유행에 따른 물건들로 장식해 놓고 사는 동료들 찾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들이 친구들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 카드놀이를 즐기고 건빵과 차를 나누고 기다란 담뱃대의 연기를 빨아들이다가 카드를 돌리는 막간을 이용하여 러시아인이려면 누구나 거절할 수 없는 상류 사회에서 흘러나온 이런저런 유언비어를 떠들어대거나, 정 할 말이 없으면 팔코네 동상이— 말 꼬리가 잘렸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어느 사령관에 대한 오래된 일화를 다시 되풀이하는, 한마디로 다들 기분 전환이나 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시간에도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시간을 보냈다. 어떤 모임에서도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쓸 만큼 다 쓰고 나면 ‘내일은 또 무엇을 정서해야 하나?’ 하고 미리 내일을 상상해 보며 그는 미소 띤 얼굴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400루블의 급료로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한 인간의 평화로운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아마 또 그렇게 순조롭게 말년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9급이든, 3급이든, 7급이든, 또 어떤 공직자이든, 관청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삶의 길에 뿌려진 갖가지 큰 불행이 없었다면 말이다.

삐쎈르부르크에서 연봉 400루블 정도의 급료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적이 있다. 이 적이란 다른 아닌 북풍이다. 하기가 북풍이 건강에 좋다는 말들도 한다. 하지만 적은 바로 러시아의 북풍이다. 아침 아홉시, 거리가 온통 관청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꽉 메워지는 시각에 코끝을 에리는 바람의 세찬 일격이 부차별적으로 가해지면 불쌍한 관리들은 코를 어디에 감추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른다. 높은 직책의 나리들도 흑한에 이마가 아파지고 눈에서 눈물이 찔끔 쏟아지는 이 순간에 가난한 9급 관리들은 항상 속수무책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얇은 외투 자락에 몸을 숨기고 대여섯 개 거리를 가능한 한 재빨리 지나 길에서 뽀뽀 얼어붙은 몸이 녹아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경비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다.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있는 힘을 다해 똑같은 지역을 달려가는데도 얼마 전부터 등과 어깨가 유난히 시린 듯 한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그는 외투에 무슨 흠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와서 외투를 잘 살펴보니 등과 어깨 부분에 두세 군데 구멍이 뚫려 거친 무명이 들여다보였고, 양복지는 거의 속이 비칠 정도였으며, 안감도 남아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외투 역시 동료들의 놀림감이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외투라는 점잖은 이름 대신에 실내복이라고 불렸다. 사실 모양이 좀 이상하기도 했다. 외투의 다른 약한 부분에 덧대기 위해 옷깃을 조금씩 떼어 쓴 바람에 외투 깃이 해마다 줄어든 것이다. 재봉사의 솜씨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지 덧댄 부분은 헐렁하여 보기가 흉했다. 사태를 파악한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외투를 삐프로비치에게 가져가기로 했다. 삐프로비치는 뒷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4층 어딘가에 살고 있는 재봉사로 애꾸에다 얼굴은 반점으로 온통 얼룩덜룩했지만 관리 제복이며 다른 바지며 예복을 고치는 솜씨는 꽤 괜찮았다. 물론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에 탄 궁리를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러했다. 물론 이 재봉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소설이라는 것이 원래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니, 뭐 할 수 없이 여기서 삐프로비치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다. 그는 어느 지주 닥의 농노 출신으로 처음에는 그냥 그리고리라고 불렸다. 농노 해방이 되자 모든 축일마다 술을 퍼마시면서 삐프로비치라고 불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축일에만 술을 마시던 것이 차츰 달력에 십자 표시가 있는 날만 되면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셔댔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는 옛 관습에 충실한 사람이었으며, 아내와 말다툼을 할 때면 아내를 속물이니 독일 여편네니 하고 불렀다. 아내 이야기도 나왔으니 그녀에 대해서 한두 마디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녀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으며 단지 삐프로비치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만이 잘 알려져 있었다. 인물은 자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 그래도 근위대 병사들만은 그녀를 만날 때 그녀의 모자 아래를 흘깃 보고 윙크를 하며 괴상한 소리를 질러댔다.

물과 구정물 투성이인 삐쎈르부르크 집들의 뒷계단이면 어디서나 맡을 수 있는 잘 알려진 알코올 냄새로 눈물이 나올 정도인 계단을 따라 삐프로비치의 방으로 가면서,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벌써부터

페트로비치가 가격을 얼마나 부를까 생각하고 있었다. 2루블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주인이 무슨 생선 요리를 하는지 부엌에 연기가 자욱했으므로 바퀴벌레 한 마리도 볼 수 없었다.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는 안주인도 눈치 채지 못하게 부엌을 지나 페트로비치가, 색칠하지 않은 넓은 나무 탁자앞에 터키 총독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방으로 들어섰다. 작업 중인 재봉사들이 늘 그렇듯이 그도 맨발이었다. 이미 아까기 아까기예비치의 눈에 익은 커다란 그의 발가락과, 거북이 등껍질처럼 두껍고 딱딱한 발톱이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페트로비치의 목에는 실타래가 걸려 있고 무릎에는 흰 옷이 놓여 있었다. 그는 벌써 삼 분 동안이나 애썼지만 바늘에 실이 꿰어지지 않아 몹시 화가 나 있었으며, 방이 어둡다느니 실이 못 쓰겠다느니 하며 소리 내어 투덜거리고 있었다. “이런 망할 것,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정말 애먹이는군, 천하의 못된 것 같으니!”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는 하필 페트로비치가 화를 내고 있는 순간에 찾아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실 그는 페트로비치가 약간 허세를 부리거나, “술에 폭 절었네, 이 애꾸눈 망나니야.”라고 그의 아내가 바가지를 긁고 있을 때 주문하기를 즐겼다. 그런 상황이면 페트로비치는 기꺼이 고집을 꺾고 손님이 부르는 가격에 응해주었으며 절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고 나면 아내가 찾아와, 사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술에 취해 싼값에 일을 맡았다고 징징거리며 하소연했다. 그러나 10코페이크까지 하나만 줘주면 그만이었다. 지금의 페트로비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았다. 간간한 성격에 고집쟁이라 얼마를 부를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는 이것을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졌지만,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페트로비치가 애꾸눈을 가늘게 뜨고 뚫어지게 바라보자,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는 마지못해 말문을 열었다.

“페트로비치, 잘 있었나!”

“나리도 안녕하시지요?”

페트로비치는 이번엔 어떤 먹이를 가져왔나 살피는 듯 아까기 아까기예비치의 손을 결눈질해 가면서 대답했다.

“페트로비치, 여기 자네에게 맡길 것이 있네, 그제…….”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는 말을 할 때 전치사, 부사에 그, 저, 그러니까…… 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인 소사나 조사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면, 문장을 끝낼 줄 모르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종종 ‘이건, 사실, 진짜로 말하면…….’와 같은 단어들로 말을 꺼내고 나서는 진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랬다는 것도 잊고서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하곤 했다.

“뭔데요?”

동시에 페트로비치는 애꾸눈으로 제복을 옷가에서부터 소매, 등, 팔 안쪽, 단춧구멍까지 구석구석 훑어보면서 물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원래 그의 일이기 때문에 그에겐 아주 익숙한 일이었다. 그런 일은 재봉사들의 습관이다.

“저, 내가 말이지, 페트로비치……, 외투가 말이야, 양복지가……, 자 여길 봐, 다른 데는 전부, 멀쩡한데, 좀 먼지가 앉긴 했어도 말이야, 하긴 좀 낡아 보이지만, 그래도 새것 같아. 자, 여기 한 군데가 좀…… 그러니까 등 쪽이, 아, 그리고 한쪽 어깨가 닳아서 구멍이 났네. 그리고 이쪽 어깨도 조금…… 봐, 이게 전부야. 간단한 일이지 뭐…….”

페트로비치는 그 실내복 같은 외투를 집어 들어 탁자 위에 퍼놓고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어떤 장군의 초상화가 그려진 담뱃갑을 집으려고 창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담뱃갑에 그려진

초상화는 손가락으로 뚫린 얼굴 부분의 구멍을 종이 조각으로 떼어놓아서 어느 장군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코담배 냄새를 맡고 난 후, 뻘뜨로비치는 양팔로 그 실내복을 대충 펼쳐 들더니 불빛에 한 번 비춰보고 또 다시 머리를 저었다. 그런 다음 안감 쪽으로 뒤집더니 또 한 번 머리를 젓고 담뱃갑의 뚜껑을 열어 담배를 코에 갖다 대고는 그 뚜껑을 닫아 뒤로 감추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안 되겠는데요, 못 고치겠어요. 옷이 완전히 망가졌네요!”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뻘뜨로비치?” 그이— 목소리는 거의 떼쓰는 어린아이 같았다. “겨우 어깨가 좀 닳은 것뿐인데, 사실 덧덜 만한 천이 있지 않나……?”

“그래요, 천 같은 거야 뭐, 얼마든지 있지요. 하지만 꿰맬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게 삭아서 바늘을 갖다 대면 찢어질걸요.”

“찢어지면 어때, 또 즉시 기우면 되지.”

“덧덜 수가 없어요. 받쳐주는 게 아니라 닳아버린 옷감을 더 잡아당길 테니까요. 말이 양복이지 바람만 불어보세요, 금방 갈가리 찢어질 텐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내 참……!”

뻘뜨로비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손덜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제 겨울 추위도 다가오고 할 테니 잘라서 각반이나 만들어 쓰는 게 나아요. 추울 땐 양말만으론 부족할 테니까. 사실 이것도 독일 놈들이 돈을 더 많이 넣고 다니려고 개발한 것이죠.(뻘뜨로비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독일인들에 대해 빈정대기를 좋아했다.) 외투는 새로 하나 맞추셔야 하겠네요.”

‘새로’라는 말에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뒤죽박죽되어 버리는 것 같았다. 얼굴에 종이를 갖다 붙인 담뱃갑 뚜껑 위의 장군만 제대로 보였다.

“어떻게 새 외투를?” 여전히 꿈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으로 그가 말했다. “사실 그럴 돈이 없는데.”

“그래도, 새로 하세요.” 뻘뜨로비치는 잔인할 정도로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 만일 새 걸로 맞춘다면, 그게 저, 어떻게 저리…….”

“그러니까 얼마나는 거죠?”

“그래.”

“50루블짜리 석 장에 조금 더 얹어주셔야죠.” 이때 뻘뜨로비치는 지나칠 정도로 입술에 힘을 꽉 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말에 강력한 효과를 실어, 상대방을 느닷없이 곤란하게 만들기를 좋아했다. 그 다음, 그 말을 한 수에 상대방의 표정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결눈질로 지켜보기를 아주 즐겼다.



“외투 하나에 150루블이라고!” 가엾은 아까끼 아까끼예비치가 소리를 질렀다. 항상 조용조용히 말하던 그였기 때문에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삐프로비치가 말했다. “그래요. 외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더 붙기도 하지요. 옷깃에 담비 모피를 달고 모자에 비단 안감을 달면, 2000루블까지도 갈 수 있어요.”

“삐프로비치, 제발…….” 삐프로비치의 말은 들리지 않는지, 아니며 들려도 안 들으려고 애쓰는지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어떻게든 고쳐서 조금이라도 더 입게 해주게나.”

“절대로 안돼요. 그랬다가는 일은 일대로 망치고 헛돈만 날려요.”

단호한 삐프로비치의 말을 뒤로하고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완전히 주눅이 들어 그곳을 나왔다.

그가 떠난 후에도 삐프로비치는 입술에 힘을 짝 주어 입을 다문 채 자존심도 죽이지 않고 재봉사로서의 체면도 세웠다는 점에 혼자 만족해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서 있었다.

거리로 나온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꿈꾸는 기분이었다. “결국 일이 그렇군.”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난 일이 이렇게 될 줄, 생각도 못 했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그가 다시 덧붙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잖아.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전혀 예상도 못했다니.” 그런 다음 다시 오랜 침묵이 계속된 후 그는 입을 열었다. “그렇게 되고 말았어! 예상치도 못한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이 이렇게 되다니!” 이 말을 한 후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반대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다. 도중에 굴뚝 청소부가 더러운 몸으로 밀치는 바람에 한쪽 어깨에 온통 검댕이 묻고, 공사 중인 건물에서 석회가루가 머리 위로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결국 정신을 차린 것은, 경찰봉을 옆에 세워두고 굳은살이 박힌 주먹 위에 뿔로 만든 담배상자를 놓고서 코담배를 조금 덜어내고 있던 경찰과 부딪치고 난 뒤였다. 경찰은, “어찌자고 남의 코앞에 불쑥 나타나는 거야, 길이 안 보여?”라고 외쳤다. 이로 인해 주위를 둘러보게 된 그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제서야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었다. 이제는 두서없이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솔직하게 마치 속마음이나 은밀한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려 깊은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래, 아무튼 안 되겠어.” 아까끼 아까끼예비치가 말했다. “지금은 삐프로비치와 부딪칠 필요가 없어. 그는 지금 그러니까…… 보아하니 마누라한테 맞은 듯해. 일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것이 더 낫겠어. 전날이 토요일이니 눈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숙취에 시달릴 테고 해장술을 마시고 싶어도 마누라가 돈을 줄 리 만무하거든. 바로 그때 내가 가서 10코빼이가 은화 하나를 손에 쥐여 주면 금방 짹짹해질 테고 그러면 외투를 그저…….” 혼자서 그렇게 머리를 굴리던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돌아오는 첫째 일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멀리서 삐프로비치의 아내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장 그에게로 갔다. 재봉사는 예상대로 토요일 밤을 술로 보내고 난 뒤 눈의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머리를 바닥에 처박은 채 비몽사몽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마치 귀신에 쫓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안 돼요, 새 외투를 맞추도록 하쇼.”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10코빼이가 은화를 하나 쥐여 주었다.

“나리, 감사합니다. 나리의 건강을 기원하며 한 잔 마시겠습니다.” 하고 말한 삐프로비치는, “외투 일은 걱정 마세요. 근사하게 새 외투로 지어드릴 테니, 이쯤에서 얘기를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수선에 대해 몇 마디 하려 했지만, 삐프로비치는 다 듣지도 않고 말했다.

“제가 새 걸로 하나 반드시 해드릴 테니 저만 믿으세요. 최선을 다해 보지요. 유행에 맞게 옷깃을 은도금한 단추로 채우도록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제는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도 새 외투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한풀 꺾이고 말았다. 이제 사실 무슨 돈으로 어떻게 외투를 맞춘단 말인가? 물론 일부는 명절 보너스—를 미리 가불해 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돈도 다 쓸 곳을 따로 정해놓았다. 새 바지도 구해야 하고 헌 장화에 새 가죽을 덧대느라 구두 수선공에게 빚진 것도 갚아야 했다. 셔츠 세 벌과, 이런 데서 말하긴 민망하지만, 속옷도 두 벌 여자 재봉사에게 주문해야 했다. 한마디로 여기저기 돈 나갈 곳 투성이였다. 국장이 아주 관대하여 선심으로 40루블이 아니라 45루블이나 50루블을 보너스로 준다 해도, 다 쓰고 나면 남는 돈이라야 외투를 맞추기에는 새 발의 피일 정도로 시시한 푼돈이 될 것이다. 그는 빼프로비치가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 가끔 터무니없는 값을 불러 그의 아내조차도 참다못해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바보, 정신이 나갔어! 언제는 형편없는 — 값에 일을 맡더니, 이젠 또 뭘 귀신이 들렸나, 주제님께 그런 값을 부르고 그래!”

물론 빼프로비치가 80루블을 받고도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 해도 그 80루블은 대체 어디서 가져온단 말인가? 절반 정도라면 또 모르지, 그 정도는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니 어쩌면 반 이상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디서? .....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독자들도 잠깐 아까끼 아까끼예비치가 비용의 절반을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조그만 상자를 열쇠로 잠가두고 돈을 쓸 때마다 거기서 조금씩 떼어내어 그 상자 뚜껑에 난 틈새를 통해 넣어두곤 했다. 그리고 반년에 한 번씩 모인 동전을 세어보고 은전으로 바꾸어두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니 몇 년이 흐르는 사이에 모인 돈이 40루블은 넘을 것이다. 그러니 절반은 이미 수중에 있으나, 나머지 반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40루블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적어도 1년간만이라도 생활비를 줄이기로 결심했다. 저녁마다 마시던 차도 끊고, 저녁에 촛불도 켜지 않고 꼭 필요할 때는 주인 여자 방에 있는 촛불을 사용하면 된다. 길에서는 되도록 살살 걸어 다니고, 돌과 석판을 밟을 때는 조심조심 발끝으로 건다시피 하여 밟창이 빨리 닳지 않도록 주의하고, 속옷이 빨리 해지지 않도록 세탁부에게 맡기는 횟수를 줄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속옷 대신 오래됐지만 아직 쓸 만한 목면 가운만 걸치고 살기로 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그런 내핍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차츰 익숙해지더니 어느덧 순조롭게 되었다. 나중엔 저녁을 굶는 것이 완전히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그 대신에 미래의 외투에 대한 끝없는 이상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정신적인 포만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그 자신의 존재는 보다 완전해진 것 같았고, 마치 결혼한 것 같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았으며, 혼자가 아니라 일생을 함께 하기로 한 마음에 맞는 유쾌한 삶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았다. 그 동반자란 다름이 아니라 두꺼운 솜과 해지지 않은 튼튼한 안감을 댄 외투였던 것이다. 그는 웬일인지 생기가 돌았고 이제 스스로 목표를 정한 사람처럼 성격이 보다 강인해졌다. 그의 얼굴과 행동에서 보이던 불안과 우유부단함이, 언제나 망설이기만 하던 불확실한 특징이 이제 사라졌다. 때때로 눈에서 불꽃이 보였고, 머릿속으로는 아주 뻔뻔스럽고 대담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 옷깃에다가 담비가죽을 달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산만해졌다. 언젠가 한번은 서류를 정리하면서 간신히 실수를 모면하고, 거의 다 달릴 정도로 ‘이크’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를 그었다. 그는 매달 한 번은 빼프로비치에게 들러서 양복지는 어디서 사는 것이 낫고, 무슨 색으로 할 거며, 얼마나 주고 살 것인가 등 외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약간 우려는 하였으나 항상 만족한 기분으로 귀가했다. 돌아올 때 머릿속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마련되고, 마침내 외투가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일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40루블이나 45루블일 것 이라던 비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보너스로 국장이 아까끼 아까끼예비치에게 60루블이나 주었다. 아까끼 아까끼예비치게 외투가 필요한 것을 느낀 것인지 우연인지는 모르나 생각지도 않은 20루블이 거저 생긴 것이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일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두세 달 더 굶주린 끝에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80루블 정도의 돈을 모았다. 언제나 평온하기만 하던 그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다. 돈이 모인 바로 그 첫날 그는 빼프로비치와 함께 상점에 갔다. 아주 훌륭한 양복지를 골라서 샀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일인 데다 지난 6개월간 하나 달이 멀다 하고 상점을 들락거리며 값을 흥정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뻘트로비치도 직접 이보다 더 좋은 옷감은 없을 거라며 거들었다. 안감용으로는 옥양목을 골랐다. 뻘트로비치의 말에 의하면 질긴 걸로 보나 촘촘한 걸로 보나 그만한 옷감은 비단 중에서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윤이 반지르르한 것이 보기에도 좋다고 했다. 담비 가죽은 너무 비싸서 안 사기로 했다. 그 대신에 가게에 막 들어온 질 좋은 상품 고양이 가죽을 샀는데, 머리서 보면 담비 가죽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뻘트로비치는 다 해서 2주 만에 외투를 완성했다 그나마 솜 넣은 일만 아니었다면, 더 빨리 끝냈을 것이다. 그 일로 그가 받은 돈은 12루블이었다. 더 이상 깎는 것이 불가능했다. 명주실로 야무지게 바느질한데다 이음새 부분은 이중으로 박음질하고 바느질한 후에는 전부 자신의 이빨로 모양을 잡았기 때문이다.

정확히 어느 날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뻘트로비치가 마침내 외투를 들고 온 그날이 아까기 아까기예비치의 생애에서는 가장 장엄한 날이었을 것이다. 뻘트로비치는 아까기 아까기예비치가 출근하기 바로 직전에 외투를 가져왔다. 마침 강추위가 시작된 데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투를 입기에는 더없이 안성맞춤이었다. 뻘트로비치는 훌륭한 재봉사의 예를 갖추어 외투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아까기 아까기예비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음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 단순히 안감이나 대고 수선이나 하는 바느질장이와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새 옷을 만드는 재봉사만이 갖는 깊이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는 보자기요 수건에서 외투를 꺼내어 내밀었다. 그 보자기 수건은 세탁부가 막 배달해 온 것으로, 접어서 나중에 쓸 생각으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외투를 들어 아주 자랑스럽게 한 번 살펴보고는 양손으로 아까기 아까기예비치의 어깨에 꼭 맞게 얹은 다음, 뒤쪽을 잘 당겨서 손으로 아래쪽까지 한 번 훑어본 뒤 단추를 열어놓은 채 앞을 여겨주었다.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는 나이 든 사람답게 팔을 끼워보고 싶어 했다. 뻘트로비치가 도와주었는데 입고 보니 소매도 아주 잘 맞았다. 한마디로 말해 외투가 아주 잘 맞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는 간판 없이 조그만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데다 서로 안면이 있고 하니 그렇게 싸게 해준 것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뻘트로비치는 네프스키 거리에서 장사를 했다면 한 번 수공에 75루블은 받았을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뻘트로비치와 다투고 싶지 않았고, 게다가 뻘트로비치가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엄청난 값을 부를까 봐 조마조마했다. 그는 돈을 지불하고 감사의 말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새 외투를 입고 출근길에 나섰다. 뻘트로비치도 따라 나와 길에서 멀리 사라져가는 외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일부러 샛길로 들어가 골목을 돌아 앞질러가서는 이번에는 정면에서 자신이 만든 외투를 살펴보았다. 그러는 동안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는 축제를 즐기는 기분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깨 위에 외투가 있다는 것을 매순간 느꼈고, 몇 번씩 혼자 좋아서 싱긋 웃기도 했다. 사실 새 외투가 좋은 이유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따뜻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어떻게 출근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관청에 도착했다. 그는 경비실에서 외투를 벗어 들고 이리저리 살펴본 다음 귀중품 보관 창구에 맡겼다. 다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까기 아까기예비치가 새 외투를 맞추어 입어 더 이상 해진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소문이 온 관청 내에 퍼졌다. 그러자 모두 아까기 아까기예비치의 새 외투를 구경하러 경비실로 모여들었다. 축하와 환영의 인사가 쏟아졌다. 처음에 그는 그저 웃고만 있었으나 그 다음에는 좀 쪽스러워지기까지 했다. 모두들 한꺼번에 몰려와서 새 외투를 위해 기념 축하를 들든지, 하다못해 파티라도 열어야 한다고 떠들어대자,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는 어떻게 대답을 하여 그러듯하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당황하여 몸둘 바를 몰랐다. 몇 분이 지나자 그는 완전히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주 순진하게 둘러대기 시작했다. 이것은 완전히 새 외투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에서 헌 외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관리중 하나인 계장대리인가 하는 이가 자신은 아랫사람과도 격의 없이 지내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인 듯,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그럼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를 대신해 제가 오늘 파티를 열어드릴 테니, 모두 저희 집에 와서 차나 함께 드시지요. 마침 오늘이 제 명명일입니다.” 관리들은 자연스럽게 그 계장대리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모두 기꺼이 초대에 응했다. 처음에 아까기 아까기예비치는 거절했다. 모두들 무례한 짓이라느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느니 하는 말들을 해대자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곧이어 저역 무렵까지 새 외투를 입고 다닐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즐거워졌다. 이날은 아까기 아까기예비치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벽에 걸고 걸감과 안감을 다시 한 번 감상한 다음, 일부러 다 떨어진 헌 외투를 다시 꺼내 비교해 보았다. 그것을 보자 그 자신도 웃음이 나왔다.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나서 한참 후 식사하는 동안에도 헌 옛날 외투의 모습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를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즐거운 기분으로 식사를 마친 후에도 늘 하던 정서 작업은 할 생각도 않고 어두워질 때까지 침대 위에서 빈둥거렸다. 그 다음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어깨에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유감스럽게도 초대할 관리가 어디에 사는지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기억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데다 베제르부르크 시내의 거리며 건물이며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너무 뒤엉켜 있어 뭔가 제대로 가는 길을 떠올린다는 것이 몹시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 관리는 시내에서도 비교적 잘사는 지역에 살았으므로 아까까 아까끼예비치의 집과는 가깝지가 않았다.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먼저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어떤 인적 드문 거리를 지나야 했지만 초대할 관리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거리는 점점 활기를 띠게 되어 사람도 많아졌고 훨씬 밝아졌다. 행인들의 발길도 잦아진 데다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와 비버 털을 옷깃에 두른 남자들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도금된 못을 박은 격자 모양의 썰매를 혼자 끌고 가는 사람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대신 어딜 보나 검붉은 벨벳 모자를 쓴 마부, 래커칠이 된 썰매, 곰의 털로 된 모포로 깨끗하게 정돈된 마부석이 달리는 사륜마차들이 눈 위에서 미끄러지는 바퀴 소리를 내며 거리를 질주하였다.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처음 보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벌써 몇 년 동안 저녁시간에 거리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그는 환하게 불이 켜진 가게 진열장 앞에 멈춰 서서 장화를 벗어 들고 잘 빠진 한쪽 다리를 다 드러낸 아름다운 여자가 그려진 그림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림 속 여자의 등 뒤로 난 다른 방문을 통해 구레나룻과 멋진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미소를 짓고는 가던 길을 재촉했다. 왜 그가 미소를 지었던 것인지, 처음 보기는 하지만 누구나 직감으로 감지하는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관리들처럼, '이런, 프랑스 것들이란! 그저 나오는 대로 숨길 줄을 모르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아마 그런 생각조차 안했을까도 모른다. 사람의 정신을 들여다보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죄다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침내 계장대리가 살고 있는 집에 도착했다. 계장대리는 호화롭게 살았다. 그 집은 2층에 있었고, 계단에 등이 켜져 있었다. 현관에 들어선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바닥에 죽 늘어진 덧신들을 보았다. 그사이 방 한가운데에서는 사모바르가 부연 김을 뿜으며 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벽에는 온통 외투와 망토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에는 비버 털이 달리거나 옷깃에 벨벳을 댄 것도 있었다. 벽 너머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갑자기 크고 분명해졌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하인이 쟁반에 빈 유리잔, 크림 그릇, 과자 바구니를 얹어가지고 나왔다. 모인 지가 벌써 오래되어 차 한 잔씩을 마신 모양이었다. 아까까 아까끼예비치가 외투를 벗어 팔에 걸고 방에 들어서자, 그 앞에 있는 촛불, 사람들, 파이프, 카드용 탁자 등이 한 순간에 눈에 들어오면서 사방에서 떠들어대는 소리와 의자 움직이는 소리가 귀에 먹먹해졌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정쩡하게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지만 이내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고 그의 외투를 다시 한 번 보기 위해 다들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약간 당황하긴 했어도 본시 순진한 사람인지라 다들 한마디씩 외투를 칭찬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그런 다음 모두 아까까 아까끼예비치와 외투는 팽개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카드용 탁자로 향했다. 소음, 떠들썩함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였다. 이 모든 것이 아까까 아까끼예비치에게는 낯설기만 했다. 손은 어디에 두고 다리는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자신의 몸 전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그는 카드놀이를 하느 사람들 곁에 앉아 카드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품이 나고 지루해지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평소 잠자리에 들던 시간이 훨씬 지났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주인은 새 옷을 기념하여 샴페인을 마셔야 한다며 놓아주지 않았다. 한 시간 후에 샐러드, 차게 먹는 송아지 요리, 고기 파이, 만두에 샴페인을 곁들인 식사가 나왔다. 역지로 두 잔이나 마신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방안 분위기가 더 흥겹게 느껴졌지만, 벌써 열두시가 되었고 집에 갈 시간이 훨씬 지났다는 사실만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주인이 잡을까 봐 조용히 방을 빠져나온 그는 현관에서 자신의 옷을 찾다가 가슴 아프게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외투를 발견하고 먼지를 잘 털어낸 다음 어깨에 걸치고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섰다. 거리는 여전히 환했다. 하인들을 비롯해 온갖 인간이 다 모이는 작은 선술집은 아직 열려있었다. 문틈으로 기다란 불빛이 한 줄기 새어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직 가지 않은 손님들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술집에서는 부잣집 하인하녀들이 주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 이곳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건다가 번개처럼 휙 지나가는 모르는 여자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뒤쫓아가기도 했다. 그의 몸 전체가 특별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대체 어디서 그런 민첩함이 나왔는지 스스로도 놀라 멈춰 서곤 하는 것이었다. 곧 아까 본 그 황량한 거리가 다시 눈앞에 펼쳐졌는데, 낮에도 적막한 거리였지만 밤에는 더 했다. 지금 거리느 한층 황량하고 한적했다. 가로등도 기름이 적은지 간간이 깜빡거렸다. 울타리가 쳐진 목재 건물들을 지나치며 본 것이라곤, 길가에 반 이는 눈과 야트막한 가건물의 시커먼 덧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길을 건너 마침내 끝없이 넓어 보이는 광장에 다다랐고, 그 광장 너머로 멀리 집들이 보였다. 어쩐지 그 광장이 섬뜩하리만큼 삭막해 보였다.

어딘지 모르지만, 멀리 어디선가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는 초소가 마치 이 세상 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기서 아까까 아까끼예비치의 기쁨이 웬지 시들었다. 그는 광장에 들어서면서 마치 뭔가 기분 나쁜 일이라도 예감한 듯 견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뒤를 한 번 돌아보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주변은 그대로 어둠의 바다뿐이었다. ‘안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눈을 감고 걸던 그가 광장 끝에 다 왔는지 어떤지 알기 위해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 그것도 바로 코앞에 콧수염이 난 사람들이 불쑥 나타났다. 이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눈앞에 캄캄해지고 가슴이 뛰었다. “외투는 내 거야!” 그중 한 사람이 아까까 아까끼예비치의 달미를 잡으며 위협하는 소리로 말했다. 아까까 아까끼예비치가 ‘사람 살려’라고 외치려고 할 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그의 머릿통만 한 주먹을 들이대며 “소리만 질러봐라!”라고 위협했다.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외투가 벗겨지고 무릎에 발길질을 당해 그만 눈 위에 벌렁 나자빠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몇 분 후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을 때, 주위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한기를 느낀 그는 외투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광장 끝까지 들릴 거라고는 생각 할 수 없었다. 쉬지 않고 외쳐대며 미친 듯이 광장을 가로질러 달린 그는 초소에 도달했다. 초소 옆에 창을 받치고 서 있던 보초는 대체 어떤 인간이 멀리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나 알고 싶은 듯 호기심을 갖고 그를 바라보았다. 보초에게 다가간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숨을 헐떡이며 강도를 당했는데 그것도 안 보고 뭐했느냐, 조느라고 못 본 것 아니냐며 큰 소리로 외쳤다. 보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어떤 두 사람이 그를 광장 한가운데 멈춰 세우는 것을 보고 친구들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 소리만 질러댈 것이 아니라 내일 파출소장을 찾아가 누가 외투를 가져갔는지 찾아달라고 하는 게 낫다고 말해 주었다.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집에 돌아왔다. 별로 많지도 않은 머릿털은 관자놀이와 뒤통수에 제멋대로 헝클어져 붙어 있었다. 옆구리, 가슴, 바지 할 것 없이 온통 눈투성이였다. 집주인 노파는 문을 무섭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일어나 한쪽 발에만 신발을 신고 달려나와 두려움에 가슴을 움켜쥐고서 살며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아까까 아까끼예비치의 모습을 보자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가 사정을 다 말했을 때, 노파는 흥분하여 손을 치며 파출소장 따위에게 가봐야 찾아주겠노라고 약속만 하고 누장을 부리기가 일쑤이니 경찰서장을 직접 찾아가 보라고 말했다. 노파 자신도 경찰서장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전에 자기 집에서 부엌일을 하던 핀란드 여자인 안나가 요즘은 서장의 집에서 아이 봐주는 일을 하고 있어 서장이 집 앞을 지나갈 때 직접 보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기도하러 가서 때때로 사람들을 흐뭇하게 둘러보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좋은 사람임이 분명하다는 서이었다. 다 듣고 난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우울하게 방안을 걸어다녔다. 그날 밤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 일찍 그는 경찰서장을 찾아가다. 그러나 서장은 아직 자고 있다고 했다. 열시에 다시 갔더니 역시 아직 잔다고 했다가 열한시에 찾아 갔더니 서장이 집에 없다고 했다. 점심시간에 갔더니 현관에 있던 서기들이 무슨 일로 왔으며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들여보내지 않았다. 마침내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도 난생처음 성깔을 내며, 서장을 직접 만나 말쑥드려야 하는데 감히 들여보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자신은 관청에서 공무로 왔고 모두 고발해 버릴테니 두고 보자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반해서 서기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 그중 하나가 서장을 부르러 갔다. 서장은 웬일인지 외투 강도 사건에 대해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중요한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는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를 심문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늦게 귀가했으며, 점잖지 못한 집에 간 것은 아닌지 물었다. 완전히 머릿속이 어지러워진 아까까 아까끼예비치는 외투 사건이 소정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인지 어떤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한 채 그곳을 나오고 말았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관청에 나타나지 않았다(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음날 그는 창백해진 모습으로 더욱더 초라해 보이는 현

외투를 입고 출근했다. 외투 강도 이야기에 기회를 놓칠세라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다. 그를 위해 모금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국장의 초상화를 주문하고 부장이 아는 사람이 썼다는 무슨 책임가를 구입해야 했다. 그런 일에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관리들인지라 모은 돈은 푼돈에 불과했다. 그중 누군가가 동정심에 이끌려 적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충고라도 한마디 하겠다면, 경찰서장에게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서장은 상부에 실적을 올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외투는 찾아내겠지만 만약 필요한 법적 서류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투는 찾지도 못하고 경찰서에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다, 그러니 차라리 누군가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서 급히 손을 쓰도록 하면 일이 잘 해결된 거라고 권했다. 할 수 없이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고위층 인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 고위층 인사가 어떤 직책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별 볼일 없는 자리에 있다가 바로 최근에 중요 인사가 되었다는 것만은 알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 거의 지위 역시 다른 중요한 자리에 비하면 덜 중요한 지위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나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자리를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다. 예를 들자면, 부하 관리들로 하여금 자신이 출근할 때 층계까지 나와서 맞도록 한다든지,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직접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경비원을 통하도록 한다든지, 14급은 12급에게, 12급은 9급이나 아니면 다른 관등에게 각각 보고를 하여 그 끝에 자신에게 보고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신성한 러시아 땅에서 이미 무엇이든 모방하는 병이 만연하다 보니, 모두들 자신의 상관의 본을 받아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9급은 조그만 부서의 책임을 맡게 되자, 칸막이로 된 자신의 방을 만들어 ‘집무실’이라고 이름을 짓더니 문 앞에는 붉은 깃에 넥타이를 매고 방문객에게 문을 여닫아주는 안내원까지 세워둔 이이 있었다는데, 그 ‘집무실’이라는 것도 보통 크기의 책상이 겨우 들어갈 만한 넓이었다고 한다. 이 고위층 인사의 행동 양식과 습관은 빈틈이 없고 위풍당당했으나 복잡하지는 않았다.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체계는 엄격함이었다. “엄격, 엄격, 또 엄격.” 이렇게 그는 보통 때도 외우고 다녔고 특히 마지막 단어를 발음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아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사실 그것은 아무 명분 없는 행동이었는데도 열 명 남짓한 부서의 관리들은 안 그래도 으레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이라 멀리서 그를 보기만 해도 하던 일을 멈추고 부동자세로 서서 상관이 방을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아랫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역시 엄격함이 드러나 거의 세 마디 이상 이르지 않았다.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나? 누구와 이약기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나? 누구 앞인지 아느냐 말일세?” 하지만 그도 마음은 선량하여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장관이라는 직위가 그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장관직을 얻게 된 다음부터 그는 혼란에 빠져 갈팡질팡하더니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완전히 알지 못했다.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점잖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현명하게 처신했다. 하지만 한 직급이라도 자신보다 아래인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아주 졸렬할 정도로 단순해졌다. 입을 꼭 다물어버려 남들 보기에도 딱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이를 깨닫고 훨씬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할 정도였다. 종종 그의 눈에서 재미있는 대화나 무리에 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정체되어 있었다. 너무 넘치게 베푸는 것은 아닐까, 너무 격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품위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사고방식 탓에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침묵을 지켰고, 가끔 짝막하게 한마디씩 내뱉은 것이 전부였으므로 결국에는 따분한 인간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의 아까끼 아까끼예비치가 찾아간 것이다. 그것도 가장 안 좋은 시간에 찾아갔으니, 이 고위층 인사에게는 마침 적시에 나타나준 것이지만, 그 자신에게는 사실 최악의 순간이었던 것이다.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바로 얼마 전에 찾아온 어린 시절의 오랜 지기와 더없이 유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바쉬마취킨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짝막하게 물었다. “누구야?” 그러자 “무슨 관리랍니다.”라는 대답이었다. “아, 그래! 기다려야겠는데, 지금은 바쁘니까.” 고위층 인사가 말했다. 여기서 이 인사의 말이 거짓말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미 친구와 장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미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저 서로의 넓적다리를 톡톡 치며, “그렇게 됐군, 이반 아브라모비치!” “그러게, 스제뵘 바를라모비치.”라고 입을 떼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찾아온 관리를 기다리게 함으로써, 관직을 떠나 오랫동안 시골에 묻혀 있던 친구에게 자신을 만나러 온 관리를 얼마나 오래 현관에 세워둘 수 있는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잡담을 실컷 하고 흡족한 기분으로 한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등이 젖혀지는 안락한 의자에서

담배까지 피운 다음에야, 그는 마치 갑자기 생각나기라도 한 듯 문가에 보고서를 들고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래, 거기 관리 하나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들어와도 좋다고 하게.” 아까끼 아까끼예비치의 겸손해 보이는 외모와 낡은 제복을 발견한 고위층 인사는 느닷없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무슨 일인가?” 현 직위와 장관직을 얻기 일주일 전부터 방에서 혼자 거울을 보고 일부러 연습하여 익혀놓은 딱딱 끊어지는 정확한 음성이었다.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미리 어느 정도 겁을 먹고 최선을 다해 언변이 닿는 대로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섞어가며 완전히 새 것인 외투를 무지막지하게 강탈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총감이나 다른 누군가가 외투를 찾아주도록 청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장관은 왠지 모르게 그 같은 친숙한 태도가 버르장머리 없게 느껴졌다.

“귀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오?” 그는 픽픽말을 하였다. “절차도 모르나? 어디에 들른 거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몰라? 그런 일이라며 먼저 관공서에 문서로 제출했어야지. 그러면 관공서에서 계장과 부장을 거쳐 비서에게 전달될 테고, 그 다음 비서가 내게 보고할 텐데…….”

“하지만 각하…….”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겨우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정신을 수습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때에 땀이 무섭게 흐르는 것을 느꼈다. “각하께 감히 폐를 끼치고자 결심한 것은 사실 그 비서라는 사람들은 좀 믿을 수가 없어서…….”

“뭣이 어찌고 어째?” 고위층 인사가 말했다. “어디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갖게 됐나?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젊은이들이 상관이나 뒷사람 앞에서 이렇게 난폭하게 굴다니!” 아마 이 고위층 인사는 아까끼 아까끼예비치가 이미 오십 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만일 상대적으로 젊은이라고 불릴 수 있다 해도, 그것은 그가 일흔 살 먹은 노인과 비교될 때뿐이었던 것이다.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 누구 앞인지 아느냐고? 도대체 알거나 해, 알거나 하냐 말일세? 대답해 봐.”

이 순간 그는 발을 구르며 아까끼 아까끼예비치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무서워할 정도로 언성을 높였다.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낮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만일 경비원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실려 나갔다. 기대 이상의 효과에 만족한 고위층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정신까지 빼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도취되어 결눈질로 친구의 반응을 살폈다. 자신의 친구조차 어쩔 줄 모르고 공포감마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는 또 한 번 만족했다.

어떻게 계단을 내려와 밖으로 나왔는지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하나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장관에게, 그것도 다른 관청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호되게 혼난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거리에 뿔뿔히 떨어진 눈보라 속을 걸었다. 뻘뻘부르그에 혼한 바람은 골목마다 온통 사방에서 불어왔다. 순식간에 그의 목에 후두염이 생겼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말 한마디 할 힘도 없었다. 온몸이 통통 부어오른 채로 침대에 쓰러졌다. 당연한 질책이 때로는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는지! 그 다음날 그는 심한 고열에 시달렸다. 뻘뻘부르그의 가혹한 날씨 때문인지 병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사람이 불려와 맥을 짚었을 때는 이미 손을 써볼 수도 없게 악화된 상태였다. 의사는 환자가 의료 혜택도 받아보지 못하고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찔질을 처방했을 뿐이었다. 그나마 하루 반이 지나자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왔다. 그러자 의사가 주인집 노파에게 말했다. “이봐요, 할멈, 그렇게 멍하니 시간만 보내지 말고 지금 소나무 관이라도 주문해 주시오. 이 사람 형편에 참나무 관은 너무 비쌀 테니.” 아까끼 아까끼예비치 본인은 너무나 치명적인 그 말을 들었는지, 들었다며 그 말에 그가 엄청난 충격이라도 받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팔자를 개탄하지는 않았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환자가 내내 옆에 들떠 헛소리만 해댔으므로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는 계속해서 헛것을 보았다. 그는 뻘뻘부르그를 보고 그에게 도둑 잡는 댓이 달린 외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하였다. 침대 밑에



숨어 있는 도둑들의 기척을 계속 느끼면서 매번 주인 노파를 불러 모포 밑에 숨어 있는 도둑을 끌어내라고 하는가 하면, 왜 새 외투가 있는데 현 외투를 눈앞에 걸어두었는지 묻기도 하고, 판에 박힌 꾸지람을 들으며 장관 앞에 서 있는 듯 “각하, 죄송합니다.”를 반복하였다. 마침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지껄이며 그는 발광을 하였다. 살아생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노파는 성호를 긋기까지 했다. 그 다음엔 반드시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다. 이 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들뿐이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단지 정신없이 튀어나오는 말이나 생각들이 전부 하나같이 외투와 관련되어 맴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불쌍한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숨을 거우고 말았다. 그의 방도, 다른 물건들도 봉인하지 않았다. 첫째로 상속인도 없고, 둘째로 유품도 얼마 되지 않았다. 유품이라고 해봐야 겨우 깃털 펜 한 다발, 관공서 서식 용지 한 묶음, 양말 세 켤레, 바지에서 떨어진 단추 두세 개, 그리고 이미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실내복 같은 현 외투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다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다지 알고 싶지 않은 일이다. 아까끼 아까끼예비치의 시신은 어디론가로 옮겨져 매장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빼빼르부르그에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았다. 누구의 보호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흔한 파리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핀으로 꽂아 현미경을 들이대는 자연 관측자의 관심조차 끌지 못했던 존재가 사라졌다. 동료 관리들의 조롱을 아무런 저항 없이 참아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도 그저 평범하기만 했던 한 존재가 이제는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렸다. 비록 생을 마감하기 바로 직전이긴 했지만 그에게도 외투의 모습을 빌려 인생의 소중한 순간이 찾아와 짧은 시간 동안 그의 고달픈 삶을 비취주기도 했고, 견딜 수 없는 불행이 엄습하기도 했다. 그 같은 불행이 닥칠 때면 황제도, 세상을 호령하는 통치자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법이다. 그가 죽은 지 며칠 후 즉각 출두하라는 국장의 명령을 전하러 관청에서 사람이 왔지만 그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 더 이상 출근할 수 없다고 보고해야 했다. “어째서?”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그것이, 이미 죽어버렸고 매장한 지 나흘째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관청에서도 아까끼 아까끼예비치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벌써 그 다음날부터 훨씬 키가 큰 다른 관리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아까끼 아까끼예비치와 같은 가지런한 필체가 아니라 옆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비스듬한 필체로 그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아까끼 아까끼예비치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여기서 모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생전에 아무런 주의도 끌지 못했던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그가 죽은 후 며칠 동안 혼란스런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지만 일은 그렇게 일어났고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이야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환상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다. 빼빼르부르그 전역에 갑자기 퍼진 소문에 의하면, 깔린 깔 다리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밤마다 관리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나 도둑맞은 외투를 찾아다니다가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만 보면 관등이고 계급이고 가리지 않고 자신이 잃어버린 그 외투라고 우겨 죄다 빼앗아간다는 것이었다. 고양이 털, 비버 털, 솜, 너구리, 여우, 곰 할 것 없이 몸에 두르도록 만들어진 것이면 털이든 가죽이든 죄다 벗겨가 버린다는 것이었다. 관청에서 근무하는 관리 하나는 자기 눈으로 직접 유령을 목격하였고, 그 자리에서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를 대변에 알아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겁이 나서 줄행랑을 치는 바람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그저 멀리서 손가락을 흔들며 자신을 위협하는 모습만을 기억했다. 사방에서 9급 문관뿐만 아니라 3급 문관까지도 관등의 고하를 막론하고 신중 외투 강도로 등과 어깨가 감기에 걸릴 정도로 끔찍 얼 지경이라는 불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경찰에는 유령을 산채로든 죽여서든 잡아들여 본보기가 되도록 최고 중형에 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거의 성공할 뻔하였다. 어느 구역의 초소 경찰이 끼류쉬긴 가의 골목에서 플루트를 불고 있는 퇴직한 악사의 값싼 모직 외투를 빼앗으려고 음모하는 현장을 덮쳐 유령의 뒷덜미를 막 낚아챘던 것이다. 유령의 옷깃을 단단히 잡고 있던 초소 경찰은 큰 소리로 동료 둘을 불러 그들에게 유령을 넘기고 자신은 구두 속에 넣어둔 담배를 꺼내 피우면서 그동안 여섯 번이나 얼어붙은 코에 잠시 바람이나 넣어야겠다는 생각에 잠시 몸을 굽혔다. 그러나 그 담배란 것이 죽은 사람조차도 결코 견딜 수 없을 지독한 것이었다. 초소 경찰이 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 코담배 반쯤을 들이마시려고 하는 찰나, 유령이 재채기를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담뱃가루가 세 명의 경찰 눈에 들어가 버렸다. 잠시 동안 주먹으로 눈을 비비는 사이 유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중에는 유령이 정말 그들의 손에 잡혔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때부터 초소 경찰들은 유령이라며 다들 공포에 떨었다. 산채로 잡는



것조차 두려워 멀리서만 그저, “어이, 이봐, 어서 저승으로 꺼져버리지 못하겠어!”라고 외칠 뿐이었다. 유령 관리는 어느새 깔린길 다리너머 겹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실화가 환상적인 이야기로 발전해 나가는 데 사실상의 원인이 된 그 고위층 인사를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심하게 방치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실 말리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지만, 불쌍한 아까끼 아까끼예비치가 지나치게 책망을 당하고 사무실을 떠난 후, 그도 뭔가 연민의 정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도 동정심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한상 관등이 걸려 표현을 못할 뿐이지 여러 가지 좋은 행동을 하는 마음씨를 가졌던 것이다. 방문한 친구가 사무실에서 나가자마자 그는 불쌍한 아까끼 아까끼예비치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기까지 했다. 이때부터 거의 매일 업무상의 질책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얗게 질려버린 아까끼 아까끼예비치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에 대한 생각으로 너무 지나치게 괴로워한 나머지 그 일주일 후에는 관리를 보내어 아까끼 아까끼예비치가 어떻게 지내는지, 뭔가 도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했다 그런데 열병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보고를 듣게 되자 충격과 양심의 가책으로 온종일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기분 전환으로 나쁜 인상은 빨리 잊고 싶어서 친구 집에서 하는 저녁 모임에 참석하였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들 점잖았고 무엇보다도 모두 그와 같은 관등의 사람들이었으므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덕분에 그의 정신 상태는 놀랄 정도로 달라졌다. 기분이 좀 풀어지자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려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한마디로 저녁시간을 아주 유쾌하게 보냈다. 저녁 식사 후에 그는 샴페인을 두 잔이나 마셨다. 알다시피 기분 전환에는 샴페인이 최고다. 샴페인으로 취기가 돌자 그는 여러 가지 특별한 것이 하고 싶어졌다. 예컨대 그는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여자인 카롤리나 이바노브나의 집에 들르기로 했다. 그는 독일 태생인 듯한 이 여자에게 대단한 친근감을 느꼈다. 미리 말해 두지만, 이 고위층 인사는 이미 젊지 않은 나이에 훌륭한 남편이요 존경받는 아버지였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이미 관청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몸이 좀 구부정하긴 해도 코가 매력적인 열여섯 살 난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날마다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봉주르, 빠빠(안녕, 아빠).”라고 인사를 했다. 그의 아내도 아직 생기 있고 나쁜 데가 없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이 먼저 입 맞추도록 자기 손을 내밀었다. 그 다음 자기 손을 내린 후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 고위층 인사는 가정 생활의 안락함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시내의 반대 지역에 여자친구를 두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아주 고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이 여자친구는 아내보다 예쁘지도 젊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것쯤이야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그래서 고위 인사는 계단을 내려와 썰매에 올라 마부에게 “카롤리나 이바노브나의 집으로.”라고 말했다. 그는 따뜻한 외투로 몸을 완전히 휘감은 채 즐거운 기분에 도취되어 있었다. 러시아인으로서 더 좋은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 기분이란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데도 머릿속으로 즐거운 생각들이 저절로 꼬리를 물고 이어져 굳이 뭐가를 생각해 내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만족감에 도취된 그는 즐겁게 보낸 저녁 파티를 떠올리며, 많지 않았던 좌중을 웃겼던 말들을 모두 기억해 냈다. 이야기 가운데 대부분이 큰 소리로 다시 반복해 보아도 여전히 우스운 것들이어서 정신없이 웃어댔다고 해서 지나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어디선가 갑자기 생겨난 돌풍이 불어와, 눈을 떠부으며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리고 외투 깃을 뚫단배처럼 펄럭이게 하거나 불가사의한 힘으로 돌연 머리털을 덩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돌풍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갑자기 그 고위층 인사는 누군가 자신의 옷깃을 엄청난 힘으로 잡아채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니 작은 키에 낡아 빠진 제복을 입은 사람이 보였다. 그가 아까끼 아까끼예비치임을 알아챈 고위층 관리는 기겁을 하였다. 그 관리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했고, 완전히 죽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고위층 인사의 공포가 극에 달한 것은 죽은 사람의 입술이 일그러지면서서 무덤 냄새를 풍기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기 때문이다. “아! 바로 네놈이로구나! 이제야 네놈을, 그러니까 저, 옷깃을 잡았구나! 난 네놈의 외투가 필요해! 내 사정을 봐 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야단을 치다니, 자, 이제 옷을 내와!” 가련한 고위층 관리는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그는 관청에서, 특히 아랫사람들 앞에서 어찌나 성질을 내는지 표정이나 몸가짐이 강직하여 누구나 한 번만 보면 “거 성질 한번 대단하네!” 하고 말할 정도였다. 여기서도 그는 겉으로 보기엔 영웅호걸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다가 무슨 발작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그는 얼른 외투를 벗어던지고 마부에게 여느 때와는 아주 다른 목소리로 외쳤다. “전속력으로 달려! 집으로 가자!” 그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순간이거나 실제로 아주 다급한 일이 벌어진 경우거나 나오는 목소리라는 걸 알아챈 마부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어깨 사이로 머리를 움츠린 채

채찍을 치켜들고 쏜살같이 달렸다. 약 육 분 정도 지나자 고위층 인사는 이미 자기 집 현관 앞에 와 있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 외투도 없이 마구 형클어진 모습으로 까롤리나 이바노브나에게 가는 대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겨우 자기 방까지 기어가 혼미한 상태로 밤을 지냈다. 다음날 아침 차를 마시던 딸이 직접 말했다. “아빠, 얼굴이 창백하시네요.” 그러나 그는 입을 꼭 다문 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어디에 가려고 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사건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감히,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라고 말하는 일도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다. 예전과는 달리 무슨 사정인지를 처음부터 다 들어본 다음에야 비로소 호통을 쳤다.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일은 장관의 외투가 유령의 몸에 꼭 맞았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후로 관리 유령의 출몰이 현저히 준 것이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외투를 빼앗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한편 활동적이고 꼼꼼한 사람들은 결코 마음을 놓으려 하지 않았고, 시내에서 좀 먼 지역에서는 여전히 관리 유령이 나타난다는 말들을 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어느 키 큰 감시 초소의 경찰이 어느 건물에서 나오는 유령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한번은 어느 집에서 뛰쳐나온 돼지 새끼 한 마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그 바람에 주위에 있던 마부들이 박장대소하자 그들에게서 자신을 조롱한 대가로 담배 한 갑씩을 빼앗은 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힘없는 그가 유령을 보고 잡을 엄두도 못 낸 채 어두운 데서 그 뒤를 졸졸 따라갔다. 마침내 유령이 뒤를 뒹 돌아보며 우뚝 서서, “넌 뭐야?”라고 물으며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주먹을 내밀었다. 초소 경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뒤로 돌아섰다. 그런데 유령은 전보다 키도 훨씬 큰 데다 위엄 있어 보이는 콧수염까지 기르고 있었다. 오부호프 다리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가 싶더니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